

『라 셀레스티나』 : ‘성(Sexuality)’의 근대성과 중세 도덕주의의 명암

김춘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1. ‘성(Sexuality)’의 역사성

언어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과 의미가 갈등을 벌이는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성(sexuality)’의 개념화 과정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다양한 권력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를테면, ‘성(sex)’이라는 말이 서구에서 처음 쓰인 16세기에는 남성과 여성 집단 사이의 성별 차이와 분할을 뜻했으며, ‘양성간의 성관계’가 지배적 의미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성적인 것’을 포괄하는 추상적 범주의 ‘성(sexuality)’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의 잠정적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와는 성 인식이 판이해서 남녀 사이의 성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에서는 성이 상하 관계로 파악되었고 성행위는 사적 체험이 아니라 신분을 각인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의미가 강했다. 군림하는 자와 예속되는 자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신분의 상하 관계를 구체화하는 행위였다.¹⁾ 그만큼 남녀의 이성애적 관계가 두드러진 요즈음과 달리 동성애적 관계도 이성애적 관계에 못지않게 보편적이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 다양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성’이 인간과 세상을 의미 있게 하는 행위라는 문화적 허구로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근대 시민계급의 성 문화는 남녀 간 성 관계를 사적 관계로 이해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행위로 개념화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푸코는 성을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로 정의해 사회학적으로 접근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성의 역사』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17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분출되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르주아 계급의 엄격한 성적 규율로 성 억압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소위 성의 ‘억압 가설(the repressive hypothesis)’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억압되었으니 이를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는 식의 가설은 성 억압 기제를 마르크시즘과 같은 진보적 정치사관과 동일시하는 18-19세기 식 담론으로 성을 파악하는 데 과학적 진실과 객관적 지식의 차원을 중시한 서구 고유의 얇은 의지가 발현된 예이다. 성은 권력이 통괄하려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어떤 것이나, 지식이 밝혀내야 할 미지의 실체 또는 포착하기 힘든 감추어진 현실이 아니라, 몇몇 지식과 권력의 주요 전략에 따라 육체의 자극, 쾌락의 농축, 담론에의 추동, 특별한 지식의 형성, 통제와 저항의 강화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표면이라는 것이다.²⁾ 그것은, 성의 구조가 결정되고 주조되는 것은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같은 단일 통제 메카니즘이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중첩되고 때로는 상충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에서 지배와 비판, 예속과 저항을 생산하는 복합적 권력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계급,

1) Halperin, David M, “Is there a History of Sexuality?,” *Sexualities.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I Making a Sociology of Sexualities*, Ken Plummer(ed.), London & New York (2002),377, 384.
2) Foucault, M.: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An Introduction*. Robert Hurley(Trans.), New York, (1980) 108-109.

인종과 같은 권력 기제는 하나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파악되는 변화무쌍한 유동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의 역사적 상대성과 사회권력 메카니즘을 상기할 때, 1499년 출간된 로하스(Fernando de Rojas)의 『라 셀레스티나』는 중세를 넘어 근대의 문턱에 들어설 무렵 스페인 사회의 성과 쾌락의 문제를 역동적 사회 현상으로 이해시켜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³⁾ 시대적 전환기의 성과 쾌락의 사회적 존재양식과 그 정치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말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스페인 역사의 격동기를 맞아 개인의 성과 쾌락이 사회 규범과 억압에 여하히 반응하고 저항하며 변화를 겪게 되는 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일반적 중세 문화와 궤적을 달리하는 스페인의 고유한 역사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여기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한 사회의 성 문화가 지니는 역사성을 명료히 드러내면서도 우리시대 성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할 만큼 보편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리얼리즘을 구현하고 있다는 데서이다.

2. 궁정연애의 이상과 현실

『라 셀레스티나』에서 성의 주제는 이채롭고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식과 조망을 요구한다. 성을 중매하는 마녀 셀레스티나의 애정관이 쾌락주의(hedonism)적이라면, 이해타산이 밝은 늙은 하인 셉프로니오는 쾌락을 거부하지 않지만 열정적이기 보다 냉정하다는 점에서 오비디우스(Ovidius)적이라 할만하다. 칼리스트의 연애 궁정 연애(amor cortés/amour courtois) 양식을 따르고 있다면 멜리베아의 사랑관은 오히려 기독교 규범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 두 인물의 연애는 중세 서간체 감상소설의 연애 유형이나 베아트릭체를 이상화한 단테의 청신체(淸新體 dolce stil nuovo) 풍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전통과도 멀리 빗겨나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세 봉건사회의 일반적 연애 규범인 궁정 연애와 여하히 맥락을 같이 하고 차별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라 셀레스티나』를 스페인 너머 유럽 문화의 보편적 궤적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한 귀족 기사 칼리스트는 매사냥을 나갔다가 한 저택 정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멜리베아와 조우하여 첫 눈에 반하게 되지만 사랑을 이를 길 없다. 멜리베아는 지고한 아름다움을 갖춘 미의 화신이지만, 그럴수록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할 수 없는 까닭에 처절한 고통이 된다. 칼리스트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갈증과 고통을 이렇게 탄식한다.

당신을 그토록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만들 권능을 자연에 부여하신 것, 보잘 것 없는 제게 그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때마침 이런 곳에서 사랑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이런 기회를 얻고자 하느님께 바친 보잘것없는 제 봉사와 희생과 공덕에 비해 분에 넘치

3) José A. Maravall은 『라 셀레스티나』에서 중세 궁정 연애 전통보다 근대 시민 사회의 자유분방하고 무책임한 성 풍조와 방종한 연애관을 지적했다.(*El mundo social de "La Celestina,"* Gredos, Madrid, 1981, ch. VIII.)

4) William Foster, D., "Some Attitudes towards Love in the *Celestina*," *Hispania*, Vol. 48, No. 3 (Sep., 1965), pp. 484-492.

는 큰 상이요, 그리고 제 인간적 의지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권능보다 큰 보상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지금 저 같은 영광을 누리리까? 분명, 신의 현현에 도취하는 영광스런 성인들도 제가 당신 모습에 취해 느끼는 것만큼 큰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오, 그러나 내 경우가 다른 것은 성인들은 떨어질 두려움 없이 축복을 누리지만, 제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당신이 없어 다가올 가혹한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요.(*La Celestina*,⁵⁾ 53-54)

En dar poder a natura que de tan perfecta hermosura te dotase, y hacer a mí inmérito tanta merced que verte alcanzase, y en tan conveniente lugar, que mi secreto dolor manifestarte pudiese. Sin duda, incomparablemente es mayor tal galardón que el servicio, sacrificio, devoción y obras pías, que por este lugar alcanzar yo tengo a Dios ofrecido, ni otro poder mi vountad humana puede cumplir. ¿Quién vido en esta vida cuerpo glorificado de ningún hombre, como agora el mío? Por cierto, los gloriosos santos, que se deleitan en la visión divina, no gozan más que yo ahora en el acatamiento tuyo. Mas ¡oh triste! que en esto diferimos : que ellos puramente se glorifican sin temor de caer de tal bienaventuranza, y yo, mixto, me alegro con recelo del esquivo tormento, que tu ausencia me ha de causar.

칼리스토의 연모는 숭배에 가깝고 신에 대한 경배를 능가한다.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도가 성경에서 최악시 하는 저급한 여자 따위를 그렇게 찬미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고 다그치는 늙은 하인 썸프로니오의 질책에 칼리스토는 “내가 기독교도냐구? 나는 멜리베아요, 멜리베아를 경배하고 멜리베아를 믿으며 멜리베아를 사랑하네.(Yo? Melibea soy y a Melibea adoro y en Melibea creo y a Melibea amo.)(59)”라고 대꾸한다. 기독교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패러디 하고 있는 것이다. 연인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사랑은 신앙의 경지를 넘어선다. 그런 의미에서 칼리스토의 멜리베아에 대한 사랑은 연인 숭모를 성모 마리아 경배의 경지로 격상시킨 전형적 궁정 연애 양식을 보여준다.

사실, 궁정연애는 상당히 정형화된 이상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현실에서 일관된 양식으로 규격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양식으로 변덕스럽게 경험되고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틴은 J. H. Martin은 칼리스토가 보이는 증세들, 즉 창백함, 한숨, 식욕상실, 가슴 땀, 죽음 등은 궁정 사랑의 외형적 징후들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⁶⁾ 그러나 무엇보다 칼리스토와 멜리베아 사이에 증대인 셀레스티나를 등장시키는 것이나, 연애 중 전적으로 결혼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불륜을 기조로 하는 궁정 연애 양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⁷⁾

서양 중세 사회의 성이 궁정연애 양식으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프로방스 음유시인들(trovador/ troubadour)에 의해서였다. 이들이 노래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J. 호이징가는 ‘에로틱한 생각이 문화의 가치를 획득하려면 반드시 양식화되어야

5) Damiani (ed.), Cátedra, Madrid, 1984.

6) *Love's Fools: Aucassin, Troilus, Calisto and the Parody of the Courtly Lover*, London, Tamesis, 1972, 11-12.

7) Lida de Malkiel, María Rosa, *La originalidad artística de La Celestina*, Buenos Aires, EUDEBA, 1962, pp. 206-220. 이점에 대해서도 논란은 분분하다.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사랑을 전경화하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라거나(Emilio Orozco, "La Celestina. Hipótesis para un interpretación", *Ínsula*, núm. 124 (1954), pp. 1 y 10; E. Garrido Pallardo, *Los problemas de Calixto y Melibea y el conflicto de su autor*, Figueras, Canigó, 1957), 두 사람 사이의 신분과 인종 또는 종교적 차이가 장벽으로 결혼을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었으리라는 주장(Serrano Poncela, *El secreto de Melibea y otros ensayos*, Madrid, Taurus, 1959, pp. 7-36; Rodríguez-Puértolas, "El linaje de Calisto," *De la Edad Media a la edad conflictiva*, Madrid, Gredos, 1972)도 있어왔다.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대에 노래된 사랑의 욕망과 고통은 죽음과 별리 같은 불운과 재난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었지만, 12세기 트루바두르들이 노래한 궁정 사랑은 '채울 길 없는 갈망'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⁸⁾ 이 채워지지 않는 불행한 사랑의 주제는 페트라르카와 단테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끊임없이 사랑의 고통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부인은 언제나 응답을 거부하는 사랑의 법칙을 공고히 했다. 바로 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 성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랑에서 이승의 어떤 것보다 숭고한 사랑의 가치가 만들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거부하는 순결이 사랑으로부터 유래하게 된 것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에서처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궁극적 실현인 육체적 결합을 경원해야 하는 역설적 사랑의 양식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⁹⁾ 기사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듯이 시인은 부인에게 무조건 예속과 영원한 지조를 서약했다. 봉건 영주와 기사 사이의 절대적 복종 관계가 남녀의 애정관계에 투영된 것이다. 예절과 비밀과 인내와 겸허가 사랑하는 자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 사랑을 바치는 부인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하여 J. 호이징가는 '스콜라 철학이 모든 철학적 사고를 통합하려는 중세 정신의 웅대한 노력을 대표하듯, 궁정 사랑의 이론은 보다 덜 높은 영역에서 고상한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¹⁰⁾

그러나 규범과 이상은 늘 현실과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중세 사회의 성도 이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성 억압과 교회 밖의 자유분방한 성, 규범적 성 도덕과 제한되어야 할 성적 타락 사이에서 개인도 사회도 성의 이중적 양면을 경험하고 있었다. 육욕과 금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뇌도 이를 웅변해준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창부의 존재 이유를 인정한 것도 같은 예이다. 궁정 연애의 이상은 난폭하고 난잡한 기사계급의 성적 문란을 위장하는 이상화된 관념적 문화 코드에 불과했다. 실제 현실은 반대로 거칠고 음란한 성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다. 기사들은 특히 11-13세기 이교도들(Albigensian)의 영향으로 잔인하고 야만적인 암살과 살육을 일삼는 자객들이요 강간납치범들이었다. 또한, 봉건 사회에서 결혼은 영지와 부의 팽창이 주목적이었고, 결혼 후 기대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여자에 대한 학대가 가혹했으며 혈연관계가 모호했던 시대에 근친결혼 금기를 구실로 결혼을 파기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는데도 교회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음유시인들이 등장해 기독교 영향을 받아 궁정 사랑을 이상화하고 친구 부인을 유린하는 폭력적 기사들이 여인들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다. 친구부인을 유혹하고 거부하면 납치하는 기사들의 불륜을 낭만적으로 이상화시키고 사랑을 성취하는 데 수많은 난관을 설정하여 아예 성취 불가능한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미화하고 이상화 한 궁정 사랑이 현실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긍정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궁정 사랑은 십자군 전쟁으로 남편들이 집을 비운 영지에서 혐오와 천시의 대상이던 여성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교양을 갖추며 찬미의 대상인 귀부인의 지위로 격상하게 된 것은 궁정 사랑의 배경이자 그 결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성이 문화와 규범의 영역 내에서 인식되고 사회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을 위한 사랑을 가지 있게 인정하려는 경향, 즉 '정숙한 척하는

8) 『중세의 가을』, 최홍숙 역, 문학과 지성사, 1988, 136.

9) De Rougemont Denis, *Love in the Western World*, trans. by Montgomery Bel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35.

10) Idem, 132. 라캉(J. Lacan)은 《신과 여성의 쾌락(God and the Jouissance of Woman)》에서 궁정 사랑을 “성적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해낸 척 하면서 성적 관계의 부재를 보상받는 세련된 방법”이라고 했다.(Mitchell, J. & Rose, J. (Eds.), *Feminine Sexuality: Jacques Lacan and the école freudienne*. (New York: W. W. Norton, 1985), p. 141.)

고도의 형식주의' 쿠르투아지(courtoisie)가 나타나게 되었다. 기욤 드 로리스(Guillme de Lorris)의 『로망 드 라 로즈』에서처럼 관능적 사랑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윤리적 열망을 흡수할 수 있는 에로틱한 이상, 즉 궁정 연애의 전범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관계에서도 궁정 연애가 갖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중성이 극단적으로 과장되고 희화화된다는 사실이다. 사랑에 빠져 멜리베아를 찬미하는 칼리스토의 과장은 궁정 연애의 윤리적 순결을 넘어선다. 더 이어몬드(A. D. Deyermond)는 멜리베아와 만나는 첫 장면의 독백에서 칼리스토는 카페야누스(A. Capellanus)의 『사랑에 관하여 3권』 (*De Amore libri tres*) 궁정 연애의 원리를 원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인공을 우스꽝스럽고 희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¹¹⁾ 칼리스토의 멜리베아 숭배와 예찬은 하인 셴프로니오에게 질타 당하고, 셀레스티나에게 이용되고 조롱당하며, 충직한 하인 파르메노에게조차 셀레스티나를 끌어들이는 불륜지사라며 멸시당하고 배신당한다. 사악한 셀레스티나를 끌어들이는 것도 부도덕하거나와 그녀의 중개로 멜리베아와 밀회를 나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드는 칼리스토의 애정 행각은 궁정 연애를 빙자한 성적 방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별리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상적 사랑과는 격을 달리 한다. 요컨대 던 Peter N. Dunn이나 리다 데 말키엘 M. R. Lida de Malkiel 등이 지적했듯이 『라 셀레스티나』는 궁정 연애의 모범적 전례가 아니라 과장된 패러디와 풍자로 볼 수밖에 없다.¹²⁾

그러한 과장과 희화화로 얻어지는 심미적 성취를 스페인 양식의 해학과 풍자라고 말해도 좋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서양 봉건사회와 궤적을 달리한 스페인 중세 사회의 이질적 역사에서 그렇게 농도 짙은 해학과 풍자의 배경을 찾게 된다. 궁정 연애가 서양 중세의 성 관습을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랑으로 이상화하고 양식화하였던 데 반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여성혐오주의 전통이 유독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¹³⁾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인간 원죄의 씨를 뿌린 이브의 행동은 여성을 죄인처럼 천시하고 성적 쾌락을 죄악시하는 여성 혐오주의의 배경이 되었고 가부장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거슬러 올라가 『가연지서』 (*Libro de Buen Amor*)(1335)는 중매쟁이를 등장시킨 최초의 문학 작품이면서도 궁정 연애를 풍자하고, 사랑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사냥하는 것이라며 여성혐오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 셀레스티나』에서 여성 혐오주의는 '하잘 것 없는 여자 따위에 마음을 빼앗겨 열병을 앓는' 주인에게 던지는 셴프로니오의 비아냥거리는 충고(62-63)에서도 노골적이다.

이처럼 성에 관한 한 여성혐오적 기독교 이념이 스페인 문학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궁구하게 만들었을 법하다. 아트킨스(John Atkins)는 『아라비안 나이트』와 『데카메론』을 통해

11) "The Text-Book Mishandled: Andreas Capellanus and the Opening Scene of La Celestina," *Neophilologus*, XLI(1961):218-221,(Ricardo Castells, *op. cit.*, 81-82에서 재인용).

12) Castells, Ricardo; *Calisto's Dream and the Celestinesque Tradition: A Rereading of Celestina*, University of Carolina at Chapel Hill, 1995, 79-81.

13) 반면에, 유럽 중세 문학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씌어졌더라도 여성들이 성을 즐기는 사례들을 종종 보여준다. 초서(G.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관능적이고 방종한 부인의 문학적 전형(Wife of Bath)을 생각하면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성을 즐겼으리라 추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궁정 연애에서도 남성은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즐겁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성에게 단순히 태아를 임신 보관하는 기능성만 인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진보적 의사들은 여성에게도 정자의 존재를 인정해 임신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19세기까지 남성의 성적 자제력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미 중세문학에서도 성적으로 공격적인 여성, 불륜 여성, 남편을 기만하며 성에 탐닉하는 여성들이 그려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식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성관계를 죄악시했던 교회의 엄격한 규율과 억압적 분위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동방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성을 다루는 관점에서 전자는 화려한 축제와 선정적인 복장으로 관능적 유희에 빠져든다면, 후자는 지적으로 전개되는 극적 상황을 즐긴다고 지적했다.¹⁴⁾ 동방과 서방이 교차하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시대적 분수령에서 『라 셀레스티나』의 성에 대한 접근 태도는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삼색 종교와 문화가 관용과 공존의 시대를 지나 반목하고 각축하던 역사적 긴장의 시대에 무엇보다 엄격한 도덕률과 강력한 정치적 규율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관능적인 것보다 강력한 도덕률을 우선하고 이상적이고 지적인 유희보다 구체적 현실 인식과 실천적 도덕성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여성혐오주의를 교조화하고 실천 불가능한 긍정연애의 윤리적 이상을 현실로 끌어내려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리얼리즘의 정신의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봉건사회를 경험할 수 없었던 중세 스페인 사회에서 긍정 연애는 동화될 수 없는 문화적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성과 쾌락의 정치학

그러므로 『라 셀레스티나』에서 긍정연애의 이상보다 성과 쾌락의 이기적 본능이 더 강렬하게 그려진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살라만카는 쾌락을 찾고, 욕망을 채우며, 부와 권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이기적 갈등과 반목의 전장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쾌락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쟁취하려는 정치적 동력이 두드러진다. 셀레스티나는 ‘도리고 정이고 다 뭐냐’(89)며, 주인이란 하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느라 혈안이 된 자라며 하인도 주인에게 봉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익을 쟁취해야 하는 법이라고 파르메노를 설득한다.

주인 나리들의 공허한 입발림 같은 것은 내버려라. 그 작자들은 속 빈 공허한 입발림으로 하인들의 골을 빼먹는 자들이다. 박쥐가 피를 빨아먹듯이, 배은망덕하고, 욕석을 퍼붓고, 공을 잊고 상 주기를 거부한다. 늙을 때까지 궁궐에서 일생을 다 허비하는 자들이란 얼마나 가없으냐! 백 명 들어가면 한 명 살아남는 고문 옥조와도 같은 것이다. 이 시대의 주인 나리들이란 저만 아끼고 제 하인들은 돌볼 줄 모르느니라. 틀린 게 아니다. 하인들도 똑같이 해야 하는 법이니라.

Deja los vanos prometimientos de los señores, los cuales desechan la substancia de sus sirvientes con huecos y vanos prometimientos. Como la sanguijuela saca la sangre, desagradecen, injurian, olvidan servicios, niegan galardón. !Guay de quien en palacio en palacio envejece!, como se escribe de la probática piscina, que de ciento que entraban, sanaba uno. Estos señores de este tiempo más aman a sí, que a los suyos; y no yerran. Los suyos igualmente lo deben hacer.(86)

주인과 하인 사이가 가부장적 주종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로 옮겨가면서 신분사회의 계급 대립이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기적 행위 동기와 개인주의 가치관에 따라 인간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셀레스티나는 벨리베아에게 정념을 일으키도록 주술을 구사한다. 뱀의 기름과 박쥐 피로 만든 사랑의 묘약은 도도하게 가문의 체통과 명예를 외치고 선부른 사랑의 불장난을 업혀 꾸짖던 벨리베아의 가슴에 파고들어 정념에 불을 지른다. 뱀이 사랑의 은유로 표현된

14) *Sex in Literature*, vol. III, The Medieval Experience, John Calder, London, 1978, 42.

것은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성서 신화를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멜리베아(셀레스티나에게): 오, 자네가 지체할수록 난 건디기 어렵네! 제발, 바라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게. 자네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통과 번뇌만 할 것인가! 내 체통을 망쳐도 좋네. 내 위신 다 그르쳐도 좋네. 내 육신을 더럽혀도 좋네. 살을 찢고 아픈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자네를 두말 않고 믿겠네. 그래서 고통이라도 덜하면 그것으로도 족한 보상 일세.

Melibeia. ¡Oh cómo me muero con tu dilatar! Di, por Dios, lo que quisieras; haz lo que supieres, que no podrá ser tu remedio tan áspero que iguale con mi pena y tormento. Agora toque en mi honra, ahora dañe mi fama, agora lastime mi cuerpo; aunque sea romper mis carnes para sacar mi dolorido corazón, te doy mi fe ser segura y, si siento alivio bien galardonada.(201)

셀레스티나에게 몸을 내맡기는 멜리베아의 타오르는 정열은 어느 시대 여성의 육체적 욕망에 못지않다. 체통도 명예도 순결도 육욕 앞에서 다 내팽개쳐진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셀레스티나의 주술에 의한 것인가이다. 그러나 15 세기 말 스페인 사회는 마녀의 주술 효과를 액면대로 믿기에는 이미 상당히 계몽된 사회였다는 점에서 멜리베아의 위선을 위장시켜 주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 보아야 마땅하다.¹⁵⁾ 주술과 같은 초자연적 힘이 아니더라도 칼리스트도 멜리베아도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앞서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셀레스티나의 주술은 성을 도구로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상징적 권력 기제로 기능한다. 셀레스티나는 칼리스트의 하인들을 한패로 매수하는 데도 성을 도구로 삼는다. 칼리스트의 하인 셉프로니오는 주인의 요구로 셀레스티나를 소개했지만 이미 셀레스티나가 데리고 있던 창부 엘리시아와의 관계로 매수되어 있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며 셀레스티나와 한편이 되기를 거부하고, 친구 사이였던 어머니와의 옛정을 강조해도 끝내 협조를 거부하던 파르메노도 반나의 아레우사를 문틈으로 엿보고 난 뒤에는 셀레스티나가 부리는 성적 유혹의 덫에 굴복하고 만다. 아레우사와 하룻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 파르메노는 간밤의 쾌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오, 진기한 쾌락이여! 오, 진기한 즐거움이여! 누가 나보다 더 복받았고 또 복받을 자이겠는가? 누가 더 행복하고 축복받았겠는가? 내 어떤 빼어난 재능을 지녔기에, 청하는대로 얻는고! 분명코, 설사 이 노파가 나를 배신해 고통을 줄지언정 무릎으로 기어가서라도 기쁘게 해주어야겠지.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한단 말인가? 오, 지고한 하느님!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주리까? 이 영광을 누구와 같이 하리까? (172)

¡Oh placer singular! ¡Oh singular alegría! ¿Cuál hombre es ni ha sido más dichoso bienaventurado que yo? ¿Cuál más dichoso y bienandante? ¡Que un tan excelente don sea por mí poseído, y cuán presto pedido tan presto alcanzado! Por cierto, si las traiciones de esta vieja con mi corazón yo pudiese sufrir, de rodillas había de andar a la complacer. ¿Con qué pagaré yo esto? ¡Oh alto Dios!, ¿a quién contaría yo este gozo? A quién descubriría tan gran secreto? ¿A quién daré parte de mi gloria? (172)

15) 이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주술의 효과에 관계없이 불가사의 한 세계를 설명하려는 방편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씌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Sanchez', Elizabeth, <<Magic in *La Celestina*>>, *Hispanic Review*, 46(1978), 481-493.

그리하여 파르메노는 완전히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셀레스티나와 한 편이 된다. 쾌락은 하인들에게도 으뜸가는 행위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 쾌락은 아직 규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금기였다.¹⁶⁾ 혼인에 의한 성적 관계, 즉 종족 보존을 위한 가정적 행위로서만 허용되었고 쾌락적 동기는 불법이거나 도덕적 일탈로 받아들여졌다. 사회를 풍자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라 하더라도 성적 쾌락을 죄악시하는 기독교 사회의 거대담론에 도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쾌락은 파국을 초래한다. 구르사(E. Gurza)는 『라 셀레스티나』의 모든 인물들이 탄생의 원죄인 음욕의 덫에 걸려 죽는다고 했다.¹⁷⁾ 칼리스토와 멜리베아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분과 체통을 저버리고, 셀레스티나는 칼리스토의 상사병을 키우고 하인들을 매수해 이익을 탐하며, 하인들은 주인을 배신하고 셀레스티나의 술책에 가담해 성적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다가, 끝내 이익의 분배를 거절하는 셀레스티나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성과 쾌락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뒤얽혀 때로는 목적이 되고 때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관계보다 셀레스티나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된다. 칼리스토와 멜리베아의 욕망이 아니라 셀레스티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욕망의 사회적 관계가 주제로 부각된다. 툴레도 판본(1500)과 살라만카 판본(1501)이 『희비극 칼리스토와 멜리베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데 비해, 1502년 세비야 판본은 『칼리스토와 멜리베아 그리고 두쟁이 노파 셀레스티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일이다. 셀레스티나가 주목받는 것은 성과 사랑을 사회적 맥락에서 문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직업을 구실 삼아 일상적으로 살라만카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처녀 총각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 등 정보를 살살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랑을 중매하고 성을 매매하여 부를 쌓고 권력을 행사한다. 도시의 축제와 연회는 물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빠짐없이 셀레스티나가 있었으며(73), 그렇게 인적 교류를 넓힌 뒤 각종 행사를 기회 삼아 남녀의 성적 교류를 주선하는 하면 수도원을 드나들며 수녀와 수사들 사이의 연애를 중매한다. 살라만카의 버려진 여아나 하녀들을 모아 창부로 키우고, 자립 재할할 수 있는 일종의 여성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중세의 직업적 주술사 셀레스티나는 이미 중세의 경계를 넘어 근대적 사업가로 변신하고 있다. 주술사와 중매쟁이 외에도 샴바느질, 향수 제조, 화장품 제조, 제약업 등 여섯 가지 직업을 가졌다.

무엇보다 셀레스티나는 처녀막 시술사로 성 사업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중세와 근대 사이의 경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수염 난 노파(*una vieja barbuda*)’ (67), 즉 중성적인 경계인이었다. 남성의 상징인 수염을 단 여성으로 남녀를 구별하고 규율하는 성의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남성들에게는 성과 쾌락을 알선해 환심을 사고 동지를 만들며 여성들에게는 처녀막 시술로 순결 상실의 외상을 회복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처녀막의 임의적 통괄은 가부장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상징한다.¹⁸⁾ 혼인에

16) 로마의 세네카(BC4?-AD65)가 『노여움에 관하여』에서 언급한 *affectio amantium*은 15세기에도 ‘애정의 욕망, 탐욕 페이스스, 질병’으로 번역되었으며 이성(logos/ratio)을 잃은 비이성적 욕구로 해석되었다. 멜리베아의 격정과 수다는 비이성적인 음욕의 과잉 또는 상사병의 증상으로 여겨졌다.(Lacarra, María Eugenia, <<La ira de Melibea a la raíz de la filosofía moral y del discurso médico>>, *Cinco siglos de Celestina: aportaciones interpretativas*,(Rafael y José Luis Canet, ed.) Universidad de Valencia, 1997, 108.)

17) *Lectura existencial de "La Celestina,"* Gredos, Madrid, 1977, 131-132.

18) Gossy, Mary S., *The untold story : women and theory in Golden Age text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9.

의한 합법적 성관계만 용납하던 기독교 사회에서 처녀막은 성의 물리적 통제 장치이자 순결과 도덕성의 감시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레스티나는 처녀막 시술로 궁정연애에서 비롯된 순결로부터 성을 해방시키고 순결로 보장되는 명예(Honor)의 신분적 의무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떤 여자는 처녀막 재생 수술로 세 번씩이나 처녀로 팔아먹었고(76), 그렇게 처녀로 재생 수술해준 여자들 수가 무려 오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68), 살라만카의 성 감시와 통제 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panopticon)으로, 성과 광기 그리고 권력의 삼각 축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고 비정상적으로 소외된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억압이 자행되는 곳이다. 독재 권력이 아니라 근대화된 합리적 권력이 일상 언어와 문화에 침투해 은밀한 지배를 행사한다. 따라서 성은 권력 밖에서나 권력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에서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살라만카도 하나의 권력의 장이다. 순결한 성과 명예롭지 못한 성이 나뉘고, 성을 수단으로 감시와 억압의 권력이 행사된다. 교회 이념과 사회 신분 등 언어와 문화의 권력이 행사되는 가운데 처녀막은 일종의 상징적 파놉티콘이다. 그러나 셀레스티나는 처녀막의 임의 시술을 통해 파놉티콘을 무력화시키고 성의 감시와 억압을 해제시킨다. 푸코의 말대로 살라만카의 감옥이 영혼으로 육체를 가두는 곳이라면, 셀레스티나는 주술과 의술로 영혼을 교란하고 육체를 해방시키는 도전과 저항의 정치 행위를 전개했던 셈이다. 칼리스토와 멜리베아로 하여금 영혼에 갇힌 제 육체를 해방시키라고 몸부림치게 만들었으며, 파르메노로 하여금 주인에 대한 충직한 봉사 대신 개인의 욕망과 이익에 충실하라고 가르쳤다. 가부장 사회에 저항하는 권력과 신분 해방을 추구한 정치가요 쾌락을 상품화 한 성 사업가였던 것이다.

4. 도덕주의 리얼리즘 전통

여기서 중세적 가치는 르네상스적 가치와 교차한다. 세속적 쾌락과 이기적 욕망들이 발산되는 동시에 그것을 규율하는 음울한 '죽음의 춤(La danza macabra)'과 도덕적 계율주의가 대귀의 명암으로 응결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의 기제는 성의 해방이 아니라 금기 쪽으로 강화된다. 『라 셀레스티나』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칼리스토가 죽고 멜리베아가 죽는다. 셀레스티나도 죽는다. 셴프로니오와 파르메노도 죽는다. 그래서 『라 셀레스티나』에서 돈, 쾌락,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회적 갈등의 묘사는 사실주의적 안목을 넘어서 고딕적 추미(醜美)에 가깝다. 중세 문학의 도덕적 응징이나 기독교 염세주의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삶의 불확실성에 빠져든 근대인의 실존적 몸부림으로 눈여겨볼 만도 하다. 딸 멜리베아를 잃은 플레베리오는 쾌락이 악덕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실존의 굴레라고 탄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세상을 한탄하노라. 그 속에서 내가 살아왔더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들 멜리베아를 낳지 않았을 진데! 태어나지 않았던들 사랑하지 않았을 진데! 사랑하지 않았던들 이 한스럽고 절망적인 여생도 없었을 텐데!

Del mundo me quexo, porque en sí me crió, porque no me dando vida no engendrara en él a Melibea; no nacida, no amara; no amando, cesara mi quexosa e desconsolada

postrimería(XXI, 2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가 로하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콘베르소(converso)였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격동하는 스페인 사회에서 핍박을 면치 못하던 소수인종에 속했었다. 로하스는 사회적으로 억압 받는 소수인종의 실존적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한 체험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사회적 규율 사이의 모순 관계에서 우의적 표현을 찾게 했을 법하다. 『라 셀레스티나』의 결말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칼리스토와 주인의 재산을 탐하고 음모를 꾸미고 신분 질서에 도전하는 하인들의 사회적 의식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벨리베아가 아름답고 대접받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재산 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186) 인간은 신분과 혈통을 떠나 모두 평등하다고 역설하는 창부 아레우사(187)에게서도 분명하고 격렬하다. 사회 모순이 극명하면 그럴수록 사회적 규율의 그늘에 가린 성과 사랑의 인간적 본질은 더 강렬한 휴머니즘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라 셀레스티나』에 그려진 리얼리즘은 인간의 형이하학적 본능 위에 군림하는 이념과 도덕률 등 형이상학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면밀한 성찰을 촉구한다. 로하스는 그러한 질서야말로 자신과 같은 소수 인종을 억압하는 권력 기제라는 것을 꿰뚫어보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 셀레스티나』는 근대적 개인주의와 중세적 도덕주의가 엇물린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스페인 리얼리즘 전통의 일단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그것은 유럽 역사와 차별되는 스페인 역사의 특별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아랍 통치하의 근 8세기 간 기독교군은 국토수복을 위해 부단히 전쟁을 수행하고 남진해나갔기 때문에 폐쇄적 봉건사회와 다르게 인구 유동성과 사회적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국토수복전쟁이 이교도들에 대한 성전 이념을 표방하면서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정교 유착을 통한 정치적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1492년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을 축출하고 국토수복을 완결하는가 하면 콜럼버스를 신대륙에 진출시키는 등 『라 셀레스티나』 출간을 앞두고 스페인은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던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삼색 종교와 인종이 공존하던 개방적 사회전통이 개인적 욕구 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진 역동적 개방사회로 이행하는 한편, 기독교 유일주의가 득세하면서 공존과 관용의 문화 대신 획일주의 이념과 폭력이 압도하기 시작했다. 성과 쾌락의 노골적 추구하고 현실적 인식은 정치 이념과 도덕률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고 응징될 수밖에 없었다. 다원주의 문화전통과 정치적 획일주의 이념의 극단적 가치관이 극명하게 맞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 셀레스티나』는 이념과 현실이 충돌하던 스페인 근대사회의 초상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스페인 리얼리즘 정신의 이율배반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강력한 도덕주의 페이스와 개방적 현실 인식이 한데 어울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라 셀레스티나』는 봉건적 로망스를 리얼리즘 안목에서 풍자해 그 허식과 위선 그리고 비현실을 벗겨냈다. 한 세기 뒤 세르반테스는 뒤늦게 유행한 기사소설을 혹독하게 패러디했다. 희극적 편력기사 돈키호테의 연인 돌시네아는 결코 현실로 체화되지 못하고 고작 토보소의 촌부 알돈사 로렌소로 희화화된다. 『라 셀레스티나』보다 일층 가혹하게 궁정연애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칼리스토의 연인 벨리베아가 쾌락에 탐닉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 과국이 궁정연애 이상이 스페인 도덕주의 이념과 충돌한 결과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돌시네아는 궁정연애 관습이 문학에서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스페인 리얼리즘 정신은 지속적이고 선명하다. 여기서 『돈키호테』에서나 『라 셀

레스티나』에서나 리얼리즘을 추동하는 것은 미적 형식이나 지적 호기심 못지않은 도덕적 열정이다. 돈키호테는 미치광이 편력기사에서 마침내 가톨릭교도 알론소 본연의 도덕적 선(‘Alonso el Bueno’)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끝까지 쾌락을 탐하고 이기적 욕심을 쫓던 『라 셀레스티나』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요컨대 중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일상 주변의 구체적 현실로 눈을 돌렸던 『돈키호테』의 르네상스 정신도, 한 세기 앞서 성과 쾌락을 가장 근원적인 인간 본능과 사회 권력 사이의 갈등관계로 재현해낸 『라 셀레스티나』도 기독교 사회의 도덕주의 리얼리즘을 구현한 것이었다. 그것은 타자와의 공존과 화해에 이어 심각한 갈등과 투쟁을 경험한 유별난 스페인 가톨릭 사회의 문화적 에토스의 일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우리는 ‘성’의 역사적 상대성을 논하다가 성의 도덕적 본질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정말 ‘성’의 도덕주의가 『라 셀레스티나』의 진실인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다면 『라 셀레스티나』를 논함에 있어 진실이 무엇인가보다 어떤 이야기 틀들이 그 진실에 참여하고 의미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날 『라 셀레스티나』를 되돌아보며 그 풍요로운 의미들 가운데 우리를 궁구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도덕적 함의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윤리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궁극적 성찰이야말로 『라 셀레스티나』가 우리 시대에도 면밀한 통찰로 지적 에스프리를 경험시켜주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성’의 형식과 문화는 역사적일 수 있으나 인간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문제의식은 항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 셀레스티나』를 읽는 것은 15세기 스페인 사회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우리 시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15세기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21세기에 서있으며, 근대를 넘어 탈근대의 문화적 체험을 누리고 인문주의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정신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이제는 성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쾌락(jouissance)이 아니며, 문화가 복잡해지는 만큼 성의 개인차가 다양해지고 심미적 쾌락이 성적 쾌락 못지않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처럼 영화 *The Crying Game*을 분석하면서 중세 가부장 사회 남성들의 여성 지배를 여성승배라는 전도된 이상으로 위장 호도한 궁정 사랑의 패러다임은 오늘날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¹⁹⁾ 아직도 여성에게는 해방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잔재하는 궁정연애의 되새김질로 성은 더 평등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져야한다는 것을 계몽하듯이, 우리 시대 『라 셀레스티나』 읽기는 몸을 에워싼 사회적 가식과 정치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성찰하려고 계몽시켜줄 것이다.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성의 마녀 중매업자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것은 몸을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몸들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푸코처럼 ‘몸을 가둔 영혼’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 셀레스티나』의 진정한 리얼리즘 정신은 성의 자유와 억압, 그 이상과 현실

19) *Metastases of Enjoyment: Six Essays on Women and Causality*. London: Verso, 1994. 107.

의 이율배반적 가치 체험을 통해 구현된다. 성과 쾌락을 상품과 자본으로 사회적 소외와 억압을 극복하는 권력 기제에 응용한 셀레스티나는 몸의 정치를 구현하면서도 성의 이율배반적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근대인이었다. 성과 쾌락의 자유를 구가하지만 그것도 이기적이고 성의 억압 못지않게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의 쾌락을 추구한 모든 이기적 선택은 죽음과 파멸을 초래했고 셀레스티나의 성의 정치는 현실의 좌절과 도덕적 실패로 귀착되었다. 그래서 『라 셀레스티나』는 생동감 넘치는 사실성만큼 도덕적 긴장감이 넘치고 넘치는 도덕적 긴장감만큼 휴머니즘이 강렬하다. 사실적이면서 도덕적이고 또 인간적인 것은 냉철한 로고스와 열정적 페이소스가 강렬한 대귀로 어울린 원색적 스페인 문화의 고유한 바탕을 드러낸다. 사실, 스페인 민족만큼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리얼리스트들도 없었지만 그들만큼 허황한 종교 이념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광신적으로 매어 살았던 민족도 드물지 않았던가. 이 극명한 삶의 모순이 스페인 예술과 정신에 지중해의 풍광만큼 선명한 빛과 그림자의 명암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야흐로 ‘몸’의 시대에도 『라 셀레스티나』는 빛난다. 로하스의 통찰은 중세를 마감하는 르네상스의 문턱에서만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과 쾌락은 형이하학적 충동이지만 그 충동적 본능의 한계점에서 도덕적 자유를 걸어 올려야 한다는 형이상학적 명제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인간 실존이 ‘몸’으로 환원되고 형이상학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재단되기보다 진화하는 유전자의 결과물로 수렴되고, 성과 사랑 그리고 쾌락에 대한 인식 또한 생물학적 결정론에 수렴되는 마당에도, 그렇게 형이상학적 가치들이 절멸해가는 우리 시대에도, 『라 셀레스티나』에서 읽는 생동감 넘치는 성의 리얼리즘은 몸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미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온고지신의 에스프리도 형이상학적 성찰과 윤리적 분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헌>

J. 호이징가(1988), 『중세의 가을』, 최홍숙 역, 문학과 지성사.

Atkins, J.(1978), *Sex in Literature.The Medieval Experience*, vol. III, London: John Calder.

Castells, R.(1995), *Calisto's Dream and the Celestinesque Tradition: A Rereading of Celestina*, Chapel Hill: University of Carolina Press.

De Rougemont D.(1983), *Love in the Western World*, trans. by Montgomery Bel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ucault, M.(1980),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Gossy, M. S.(1989), *The untold story : women and theory in Golden Age tex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arza, E.(1977), *Lectura existencial de "La Celestina"*, Madrid: Gredos.

Halperin, D. M(2002), "Is there a History of Sexuality?," *Sexualities.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ed. by Ken Plummer), vol. I Making a Sociology of Sexualit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acarra, M. E.(1997), "La ira de Melibea a la raíz de la filosofía moral y del discurso médico", *Cinco siglos de Celestina: aportaciones interpretativas*,(ed. by Rafael Beltrán & José Luis Canet) Valencia: Universidad de Valencia.
- Lida de Malkiel, M. R.(1962), *La originalidad artística de La Celestina*, Buenos Aires: Eudeba.
- Maravall, J. A.(1981), *El mundo social de "La Celestina"*, Madrid: Gredos.
- Martin, J. H.(1972), *Love's fool:Aucassin, Troilus, Calisto and the Parody of the Courtly Lover*, London: Tamesis.
- Sanchez', Elizabseth(1978), "Magic in *La Celestina*", *Hispanic Review*, 46.
- Žižek, S.(1994), *Metastases of Enjoyment: Six Essays on Women and Causality*. London: Verso.

K C I

<Resumen>

La sexualidad y el realismo irónico en *La Celestina*

Kim, Choon Jin

Este trabajo trata de examinar cómo se manifiesta en *La Celestina* la tradición del realismo literario español en lo concerniente a la sexualidad, concepto histórico que, según M. Foucault, se formó de manera tardía durante la edad moderna del capitalismo burgués.

La sexualidad se manifiesta de maneras distintas y variadas en cada época histórica. Así, en Grecia se preferían las relaciones homosexuales a las heterosexuales y se utilizaban para remarcar las relaciones jerárquicas del estado social. En la Edad Moderna, la sexualidad llega a adquirir un valor significativo en la vida individual.

La Celestina se nos presenta como obra señera en la que se descubre una sexualidad moderna con comportamientos sociales individualistas. Todos los personajes, amos y siervos, hombres y mujeres, jóvenes y viejos, pretenden gozar de placeres como el amor y el sexo. En la grotesca y caricaturesca relación amorosa entre Celestina y Melibea se intuye una parodia del amor cortés, concepto idealizado del amor entre damas y caballeros, ideado para contrarrestar la ruda realidad sexual de la Edad Media. Tanto Sempronio como incluso Pármeno anteponen el placer individual del amor al deber de servidumbre en la sociedad feudal.

En este *modus vivenditan* individualista, rodeado de un ambiente de obscenidad y lujuria, destaca la vivacidad de las descripciones y el *ethos* propio del realismo español, que ya se observa en *El Cid* y culmina en *El Quijote*. Dicho realismo se identifica en una visión irónica del mundo y del ser humano que se revela al invertir el orden y los valores sociales ya establecidos. Basado en esta tradición estética, *La Celestina* nos muestra un realismo vivo e irónico sobre la sexualidad durante la época de transición de la Edad Media al Renacimiento; se trata de un realismo vivo cuyo sentido moralista denota, no obstante, la ideología de una sociedad que centralizaba en una nación moderna fuerzas étnicas, religiosas y culturales heterogéneas.

En este marco histórico de la modernidad, Celestina es una política que manipula las relaciones sociales, ejerciendo su poder a través de "seis oficios", negocios sexuales tales como la alcahuetería y la cirugía de virginidad. Los actos de la celestina, que trata de librar a la sexualidad de las normas sociales, subvierten el orden social establecido en sociedades patriarcales. Calisto y Melibea renuncian a su posición social al abandonar el deber social que supone el mantenimiento del honor; los criados se rebelan contra su señor e intentan explotarlo; y la sociedad al completo se trastorna debido a los conflictos entre individuos, que buscan sacarle el máximo partido a sus intereses. En el centro de este trastorno social salmantino se encuentra Celestina, cuyas intrigas ambiciosas desembocan en catástrofe: todos los personajes envueltos en sus negocios sexuales mueren.

Desde luego, el sentido del realismo en *La Celestina* yace en la ambivalencia sexual entre historia y literatura, realidad e ideología, libertad individual y norma social; esto es, entre la política de sexualidad que practica Celestina y la ideología social que triunfa sobre los intereses individuales. ¿No es esto acaso un *ethos* cultural que se revela en el realismo tradicion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A pesar de ello, el mensaje moralista que comunica el realismo de *La Celestina* sigue tan vigente en el mundo actual como a finales del siglo XV, cuando ésta se escribió. El realismo de la 'sexualidad' en *La Celestina* nos hace reflexionar sobre la validez del pensamiento metafísico en esta época nuestra en la que toda la

metafísica queda aniquilada, hasta reducirse a las leyes de la biología hereditaria; el realismo de la sexualidad, que por su naturaleza niega la posibilidad metafísica, queda irónicamente entroncado en *La Celestina* con la reflexión metafísica sobre la ética existencial del ser.

Key words: sexualidad, amor cortés, modernidad, política, ética

주제어: 성, 궁정 연애, 근대성, 정치성, 도덕주의

은행 계좌번호:

농협 서울대 지점 079-02-617628

<이상>

K C I